



조선대 흥보도우미 선발대회

20일 조선대 사범대학 6층 연주홀에서 열린 '조선대 2007년 흥보도우미 선발대회'에서 참가 학생들이 한데 모여 활기차게 웃고 있다. 9명을 뽑는 이번 흥보도우미 선발에는 모두 96명이 지원했으며,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67명이 장기자랑 등을 통해 탈당권을 확보했다.

류전형은 67명이 장기자랑 등을 통해 탈당권을 확보했다. 흥보도우미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내 행사 및 캠퍼스 투어 안내, 대학 흥보 등의 업무를 맡는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亞전당 랜드마크 해결책 찾았다

문화부 “2천석 규모 대형공연장 건립” 선회

7000~8000평 부지 지상 건설로 기능 보완

문화관광부가 ‘불가’ 입장을 표명해온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내 대규모 전문공연장에 대해 건립 추진으로 입장은 급선회했다.

문화부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박광무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광주지역 문화·예술·도시계획 전

문화부 장관·박양우 차관과 협의를 통해 지역 여론 수렴 차원에서 뮤지컬, 콘서트 등 대규모 공연이 가능한 전문공연장을 건립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앞으로 문화전당 설계 당선자인 우규승씨와 협의해 전문공연장 건립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의 전문공연장 건립이 확정될 경우 부지로는 현 금남로 구 전남도청 앞인 남도예술회관 및 협의 일대 7천800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임해철 광주오페라단 단장은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 문광부가 2천석 규모의 전문공연장을 건립하기로 한데 대해 높게 평가한다”면서 “2천석 규모의 전문공연장을 지상화하면 지역스럽게 랜드마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무 정책실장은 “문화부에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뻔한 시일 내에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부분에 대해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설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설계자와 협의를 통해 랜드마크 문제는 추가로 보완 가능한 부분을 찾고,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천석 규모의 전문공연장은 부지가 7천~8천평 정도로 넓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상 건설이 불가피한 만큼 전문공연장 건설시 취약한 문화전당의 랜드마

크 기능을 보완해 줄 것을 문광부에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임해철 광주오페라단 단장은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 문광부가 2천석 규모의 전문공연장을 건립하기로 한데 대해 높게 평가한다”면서 “2천석 규모의 전문공연장을 지상화하면 지역스럽게 랜드마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무 정책실장은 “문화부에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뻔한 시일 내에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부분에 대해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설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설계자와 협의를 통해 랜드마크 문제는 추가로 보완 가능한 부분을 찾고,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천석 규모의 전문공연장은 부지가 7천~8천평 정도로 넓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상 건설이 불가피한 만큼 전문공연장 건설시 취약한 문화전당의 랜드마

크 기능을 보완해 줄 것을 문광부에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임해철 광주오페라단 단장은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 문광부가 2천석 규모의 전문공연장을 건립하기로 한데 대해 높게 평가한다”면서 “2천석 규모의 전문공연장을 지상화하면 지역스럽게 랜드마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무 정책실장은 “문화부에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뻔한 시일 내에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부분에 대해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설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설계자와 협의를 통해 랜드마크 문제는 추가로 보완 가능한 부분을 찾고,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천석 규모의 전문공연장은 부지가 7천~8천평 정도로 넓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상 건설이 불가피한 만큼 전문공연장 건설시 취약한 문화전당의 랜드마

“손학규 탈당 잘했다” 70%

광주일보 인터넷페널 여론조사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한나라당 탈당에 대해 광주·전남 여론주도층 10명 중 7명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범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당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난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에 맞설 뚜렷한 범여권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개혁적 성향의 손 전 지사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일보는 손 전 지사가 탈당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인 19일 오후부터 20

일까지 본보 인터넷 페널을 대상으로

긴급 e-메일 설문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227명의 패널이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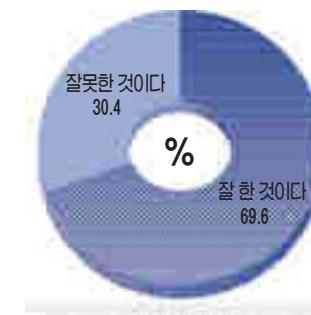
조사 결과 손 전 지사의 탈당에 대해 69.6%가 ‘잘 한 것이다’, 30.4%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탈당 이후 지지도 변화에 대해서는

58.1%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해

‘떨어질 것이다’(18.1%)에 비해 훨씬 높

■ 손학규 한나라당 탈당



았다. ‘변화 없을 것’은 23.8%였다.

손 전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전망은 ‘범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당에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75.8%로 ‘독자 신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할 것’(20.7%)이라는 의견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3.5%에 불과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오수열 조선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광주·전남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며 “손 전 지사의 탈당으로 대선 후보간 합종

연횡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손 전 지사의 탈당에 대한 언론사들의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대체로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19일 전국 성인남녀 7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손 전 지사의 탈당에 반대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4.9%, ‘찬성 한다’는 30.1%였다. ‘모르겠다’ 및 ‘무응답’은 35.0%였다.

SBS와 한국리서치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손 전 지사의 탈당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41.9%, ‘잘못한 선택’이라는 답변이 39.6%였다.

/정후기자 who@kwangju.co.kr

“보따리 장수” “무능진보 대표”

노무현-손학규 원색 비방

노무현 대통령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원색적인 비방을 주고 받으며

정면 충돌했다.

〈관련기사 4면〉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당을 하든 입당을 하든 평상시의 소신을 갖고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불리하다고 탈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사설상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지사를 공개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자기가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당을 쪼개고 만들고 탈당하고 입당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은 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에서 흔드는 것”이라며 “원칙을 과파하고 반칙하는 사람은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보따리 장수같이 정치를 해서야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우리 정치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정치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당 이후 첫 행선지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손 전 지사는 “노 대통령은 무능한

진보의 대표”라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손 전 지사는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노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 당을 만든 분 아니냐.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손 전 지사는 “오히려 노 대통령이 새로운 정치의 극복의 대상”이라며 “대통령께선 정치평론은 그만하고, 민생 걱정이나 진지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5회
우리들의 빛
어린이 그림대회

대회오늘

한국전력공사 전남사업본부